

佛法 앞에 자신을 던져볼 수 있겠는가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금강대 총장 편역)

7. 불교의 종교성에 관해서

불교의 종교성에 대한 의문

지금까지 나는 붓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밀한 인간음미에 관해서 말하였다. 또 인간간의 의지처로서 법과 삼보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신(神)이나 기원(祈願)이나 기적(奇蹟)같은 것에 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설명한 일이 없다. 아니 결국 그러한 것은 언급할 겨를도 없이 이 한권의 책은 끝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한 가르침이 과연 종교임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근본불교(根本佛敎-원시불교)에 관해서는 그 종교성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근본불교는 종교를 무시한다”라고도 말했다. 또 어떤 학자는 “불교는 처음에 기도(祈禱)가 없는 도덕적 조직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그 후에 종교가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은 오늘날 이것을 뒤돌아 볼 때 꽤 흥미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그들이 불교 특히 근본불교의 종교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종교관이 기독교적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그 껍질에 맞도록 구멍을 판다고 한다. 기독교의 강한 영향 밑에 있었던 그들은 당연히 기독교의 영향 밑에서 그 종교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종교란 ‘신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틀 안에서 모든 종교를 규정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그 전모(全貌)를 드러낸 동양의 위대한 가르침은 아무리 하여도, 그들의 종교관의 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은 당황하였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은 흥미있는 설명을 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불교 특히 근본불교의 종교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종교관이 기독교적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그 껍질에 맞도록 구멍을 판다고 한다. 기독교의 강한 영향 밑에 있었던 그들은 당연히 기독교의 영향 밑에서 그 종교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종교란 ‘신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틀 안에서 모든 종교를 규정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그 전모(全貌)를 드러낸 동양의 위대한 가르침은 아무리 하여도, 그들의 종교관의 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은 당황하였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은 흥미있는 설명을 하였던 것이다.

불교도 또한 성스럽다
그러나 적어도 종교에 관한 학(學)의 영역(領域)에 있어서는 사정은 크게 변화하였다. 기독교 이외에는 종교에 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적었던 유럽의 학자들 앞에 많은 종교에 관한 지식이 급속도로 모여졌다. 그들은 ‘신과 사람과의 관계’와 같은 오래된 종교관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종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종교적 대상은 어떠한 뜻에 있어서 인격적 존재라는

사고방식이 결코 모든 종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그러면 도대체 종교란 무엇인가. 학자들은 또 다시 한번 이 물음 앞에 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낮은 것은 미개원시(未開原始)의 종교에서 높은 것은 기독교나 불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에 관해서 무언가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는 있지 않음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학자들이 마침내 찾아낸 것은 소위 ‘성스러운 것(das Heilige)’이라는 말로써 우리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동양의 위대한 가르침인 불교도 또한 분명하게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프랑크 사회학파의 뒤르켐이 ‘성스러운 것’에 관한 신념과 행사(行事)와 공동사회가 종교의 본질적 요소임을 말한 후에 “불교가 어떤 연유로 종교인가 하는 이유도 또한 여기에 있다. 즉 그것은 신은 없지만 성스러운 것의 존재 네 가지의 성제와 거기에서 생겨나는 행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그 지적의 하나였다.

불교의 종교성의 문제는 ‘성스러운 것’이라는 관념의 등장에 의해서 객관적인 학문의 문제로서는 일단 지금까지의 애매한 것에서부터 탈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교는 단순한 객관적인 학문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주관(主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무의 심리(心理)를 분석하다

“나무삼보(南無三寶)”라고 말한다. “나무(혹은 귀의)불 나무법 나무승(南無佛)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불교도가 성스러운 것에 대하는 태도는 오래전부터 ‘나무’라는 한 말로써 표현되어 왔다. 그러면 성스러운 것에 대해서 남무(南無)한다는 것은 어떤 의식으로써 또는 어떤 태도로서 그것에 대한다는 뜻일까.

나무란 잘 알려져 있듯이 범어(梵語) 나마스(namas)의 음역(音譯)이며 의역(意譯)하여 ‘귀명(歸命)’이라고 말한다. 그 원래의 뜻은 몸을 굽히며 머리를 숙인다는 정도의 뜻에 불과하지만 후대의 주석자(註釋者)들은 다시 이 굴신정례(屈身頂禮)의 외면적인 태도를 내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의 해석을 시도(試圖)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귀투신명(歸投身命, 신명을 귀투한다)’이라는 해석일 것이다. 신명이란 온 인격을 다 한다는 뜻이며 귀투란 돌아가는 뜻이 던지며



조계사 동자승 석발 수계식에서 동자승들이 합장하며 부처님을 예경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한 말이 아닌 진실로 따를 때 불교는 종교로서 모습을 가진다.

의지한다는 뜻이다. 요컨대 전인격적(全人格的)으로 빙의(憑依)한다는 뜻이다. 무엇이 매력을 느낀 듯이, 혹은 끌려 들어가듯이, 온 인격을 털어서 삼보에 귀투한다. 그때 우리들은 비로소 삼보에 나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천태대사(天台大師)의 《오계경(五戒經)》에는 이런 주석이 붙어 있다.

“나무(南無는 오계경에서는 ‘두려움’이라 부른다. 두려움이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다. 생사험난(生死險難)의 두려움을 없애 주신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주목할 만한 주석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성스러운 것에 대한 때 반드시 이러한 놀라움과 두려움의 의식이 우리를 마음속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교법(敎法) 앞에 떨면서 서다

나무(南無)에 있어서의 경포(驚怖)의 의식, 이런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나에게 암시(暗示)해 준 것은 루돌프 윗도임 명저(名著) 《성(聖)스러운 것(Das Heilige)》이다.

그는 이 책에서 성스러운 것에 대한 때에 자기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의식을 정밀하게 서술한다.

붓다의 가르침은 정리(正理)에 합당하며 진실하며 허(虛)하지 않는 교법이었다. 그러한 교법에 따르는 것이 어떻게 하여 종교일 수가 있는가라고 사람들은 의심한다. 붓다는 ‘살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고(苦)라

고 가르친다. 만일 이러한 것이 진실로 이해되었을 때, 우리들은 여전히 천연스럽게 이 고(苦)의 진리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이제까지 날마다 즐거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 그러한 상식의 입장은 이제 가루처럼 깨어지고, 무서운 인생의 진상이 명백하게 눈앞에 나타난다. 그때 여전히 태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과연 이 교법을 진실하게 이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무(南無는 곧 경포(驚怖)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의식의 움직임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움직임으로써 상대(相對)할 때 성스러운 교법이 비로소 우리들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흔들며 전인격(全人格)을 흔들어 일으키게 된다. 성스러운 교법이 정말로 성스러운 교법으로써 작용하며 성스러운 지혜가 정말로 성스러운 지혜로써 우리들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때이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교법을 단순한 지식으로써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불교는 결코 종교가 되지 않는다. 일체개고(一切皆苦)의 진상을 단순한 말로 치부하는 자에게는 불교는 결코 종교로써 작용하지 않는다. 능히 일체개고의 가르침 앞에 떨면서 설 수 있는 사람, 제행무상의 도리 앞에 살을 에는 듯한 생각으로서 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 불교는 비로소 진정한 종교로서 나타날 것이다. 또 이러한 사람이라면 비로소 삼보의 앞에서 그 모든 인격을 다하여 귀투(歸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유교의 배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

부처님의 도가 몸을 닦는데 절실하고 정치에도 도움이 있음이 이와 같이 지극한데 요즘의 유자(儒者)들은 뇌동(雷同)하여 부처님을 배척함으로써 능사(能事)를 삼는다. 원컨대 다하지 못한 말을 풀어서 시비의 문을 막는다면 또한 다행이 아니겠는가.

답

좋은 말이다. 삼교(三敎)의 성인이 각각 그 백성의 병통을 치료하는 자이지만 다만 그 순서가 같지 않을 뿐이다. 만일 그 선권공화(善權功化)의 극치에 있어서는 용(龍)이 아닌데 어찌 용이 하는 것을 알겠는가.

그러나 허망한 뜻으로 말한다면 곧 유자(儒者)는 심(心)을 위주로 한 자이고 노자(老子)는 기(氣)를 위주로 한 자이고 불자(佛者)는 성(性)을 위주로 한 자라 하겠다. 하늘은 사시(四時)가 있어 각각 그 주체를 서로 받들어 그 명령을 선포하는데 어찌 이 셋인들 홀로 그 주체가 없겠는가.

더구나 공자는 부처님을 미루어 서방

軍)이 비록 포학하나 무기로써 조복받지 않으며, 가왕(歌王)이 비록 원망해도 이내 원망으로써 갚지 않으며, 앙굴라마가 죽이려 했으나 도리어 구제하고 제도하시며, 조달(調達)이 해치고자 했으나 수기(授記)하여 부처가 되리라 하시었으니 유·불(儒·佛)의 구별이 진실로 이와 같은 것이다.

또한 세간의 법이라는 것은 각각 그 아버지만을 아버지로 여기며, 각각 그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며, 각각 그 몸만을 몸으로 여기며, 각각 그 아내만을 아내로 여기다.

그 때문에 물·아(物·我)가 양립(兩立)하며, 자·타(自·他)가 대적함을 이루어 윤회의 일이 일어난다. 이른바 윤회의 일이라 하는 것은 생명으로써 생명을 바꾸며, 힘으로써 힘에 양강(兩強)하는 것이니, 세간의 만사가 다 그렇지 않음이 없어서 머리를 바꾸고 얼굴을 돌리어 서로 서로 고하(高下)가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결림이 없는 큰 자리로써 만행(萬行)을 쌓아 만덕(萬德)을 이루시고 삼계(三界)의 도사(導師)·사생(四生)·자부(慈父)가 되시어

유교만 알고 불교를 모르는 자는 봄만 알고 가을을 모르는 것과 같다

(西方)의 대성인(大聖人)이라 하시고 스스로는 여기에 위치하시지 않으시니 어찌 부질없이 그러하겠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이란 자는 인의(仁義)를 따르나 인의를 극진히 하지는 못했고, 도덕을 행하나 도덕을 극진히 하지는 못한 자이다.

인의·도덕은 오직 부처님만이 극진히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순(堯·舜)도 널리 배울 때 중을 구제함을 괴롭게 여겼고, 탕·무(湯·武)도 부득이 전쟁을 해서 걸·주를 정벌해야 하는 부끄러운 덕이 있었으며, 주공(周公)은 비록 성인이지만 반란을 일으킨 동생을 정벌함을 제거하지 못했으며, 공자는 비록 어지나 고삭례(告朔禮)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양(羊)을 버리지 못했다.

저 활과 화살을 만들어 천하를 두렵게 하며, 그물을 만들어 사냥과 물고기 잡는 것을 일삼으며, 희생(犧牲)을 도록(屠戮)하여 그 종묘(宗廟)에 제사지내며, 날 짐승·들짐승을 사냥하며 그 음식 만드는 부역에 공급한데 이르렀으니, 이로써 부처님의 도덕에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이 짝하지 못하고 같은 것이다.

불자(佛者)는 보시(布施)를 하면 대천 세계(大千世界)에 널리 흠족하고 덕은 곧 사생(四生)을 두루 댈는다. 마군(魔

대본(大本)으로 포괄하시고, 일성(一性)으로 평등히 사사 피차·물아(彼此·物我)가 모두 실재에 돌아가게 하시었다.

“금강경(金剛經)에 말씀하신 내가 다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들어가게 하여 멸도(滅度)하였다”함이 이것인데 어찌 다시 윤회의 일이 있겠는가.

온정을 베풀어(煦煦) 생육(生育)하고 처처(處處)히 성숙(成熟)시켜 한번 당기고 한번 느슨하게 함은 조화(造化)의 이치이니, 성인의 도를 말함이고, 양양(揚揚) 특의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는 모양이 뿌리고 흡흡(吸吸), 구름이 이어가는 모양이 거두어 한번 거두고 한번 펴는 조화의 공이니, 성인의 가르침을 말한다.

유교만 알고 불교가 있는 줄 알지 못한 자는 봄이 있음만 알고 가을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은데 훌륭한 말씀할 수 있겠는가.

하늘에는 사시(四時)가 있어 순환하며 만물을 생성(生成)하듯, 성인이 가르침을 시설하여 교대로 일어나 교화를 천하에 이룩함도 또한 이를 따른 것일 뿐이다.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구 단 구 궁 법

상표 등록 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 | |
|------------------------------------|--|
|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 저자 (속명 정홍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교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
|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싸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
|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심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로.)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 |
| 수강료 | ◆스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구 단 구 궁 법 대학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전화 010-7415-0803

僧家 秘傳 風水學 講義

옛 승가의 비전 풍수학 강의 개설
스님들을 위한 공간 확보

- 개설시기 : 2015년 3월. 첫째 목요일
- 시간 : 매주 목,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장소 : 서울시 강남역 교보문고 뒤 정통풍수지리학회
- 교재 : 유 리 자 (유리자동서) 옥 룡 자 (무감편) 무학대사 (동사심전) 등

· 관심있는 스님들께는 추가 혜택있음.
· 처사님들 강의는 따로 합니다.
· 지방 강의 개설 문의 받습니다.

전화 010-5559-1529

예 봉 합 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명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르기 어렵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신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극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총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처명)